

순천·고창, 국내 첫 문화·자연유산 모두 보유

생태계 보고 갯벌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 2018년 선암사, 2000년 고인돌은 문화유산 선정

생태계 보고이자 철새 서식지인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 2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순천과 고창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모두 보유한 지역이 됐다.

세계유산은 유네스코가 인류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1972년 시작한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등재된 세계유산은 모두 1121건인데, 그중 문화유산이 869건으로 가장 많다. 자연유산은 213건, 복합유산은 39건이다.

우리나라는 자연유산인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제외하면 13건이 모두 문화유산이었다. 이번에 신안, 보성·순천, 충남 서천, 전북 고창에 있는 갯벌을 묶은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이 되면서 자연유산이 두 건으로 늘었다.

순천시는 지난 2018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선암사와 더불어 세계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동시에 보유한 세계유산 도시가 됐다. 선암사와 해남 대흥사,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범주사, 마곡사 등 모두 7개 사찰을 묶은 '산사(山寺) 한국의 산지승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바 있다.

순천은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며,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조선시대 모습이 잘 남은 전통 마을인 낙안읍성을 등재해 둔 상태다.

고창군은 2000년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 고창갯벌이 세계자연 유산이 되면서 문화·자연유산을 모두 보유하게 됐다. 고창군은 또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고창농악, 고창판소리), 생물권보전지역까지 보유하고 있어 진정한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로 인정받게 됐다.

고창군 갯벌 유산 구역은 6466ha로, 군은 갯벌 보호관리를 위해 2018년 습지 보호 구역을 대폭 확대했다. 고창갯벌은 세계적으로 특이한 지형인 셰니어(Chenier-해안을 따라 모래 혹은 조개껍질 등이 쌓여 만들어진 언덕)와 주변의 염생식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창 고인돌

철새 서식지가 한 곳에 있어 자연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받았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갯벌을 생활 터전으로 지켜 온 고창군민과 문화재청, 갯벌지자체와 손잡고 노력해 이뤄낸 쾌거다"며 "고창갯벌의 체계적 관리와 함께 세계자연유산에 걸맞는 브랜드로 키워내기 위해 보호 체계 등 정책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유산 목록에 오른 한국의 갯벌 가운데 전남 갯벌이 차지하는 면적은 90%에 육박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전체 신청 유산구역은 12만 9346ha이고, 모두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전남지역이 전체의 약 87%를 차지한다.

신안 갯벌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특이된 적체와 90종 5만4000 개체에 달하는 물새가 방문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선정된 순천만 갯벌



2018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지정된 순천 선암사 승선교

하는 철새 이동 중간기착지로 한국의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역할을 했다. 순천·보성 갯벌은 금강에서 시작한 갯벌 퇴적물이 모이는 곳으로, 넓게 발달한 염습지와 뛰어난 염생식물 군락을 보여준다.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의 최대 월동지이며, 노랑부리저어새 등 25종의 국제 희귀 조류와 220여종의 조류가 찾는 등 생물학적 가치가 큰 갯벌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고창·김형호 기자 khj@kwangju.co.kr

여수음악제 감독에 지휘자 금난새 선임

KBS교향악단은 오는 9월 예정된 'KBS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제 5회 여수음악제' 음악감독에 지휘자 금난새(74·사진)를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음악제는 9월 1~11일 전남 여수 GS칼텍스 예술마루 및 일원에서 열린다.

금난새는 음악제 핵심 프로그램인 '여수음악제 음악학교'도 맡는다. 음악학교 학생(여수 거주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으로 선발된 20여명의 클래식 꿈나무들을 대상으로 2개월간 음악교육을 해 KBS교향악단 단원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는 프로그램이다.

금난새는 10일 메인 공연에서 생상스의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바카날', '죽음의 무도',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등을 지휘하는데 음악학교 학생들과는 셰드린이 편곡한 '카르멘 조곡'을 선보인다.

그는 KBS교향악단을 통해 "청소년 음악 교육과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 힘써왔는데 기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기쁘다"며 "힘과 위료가 될 수 있는 멋진 음악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성남시립예술단 예술 총감독 및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연합뉴스

'선경상상인 문학상' 공모 시인 대상 9월 30일까지

도서출판 '상상인'과 선경상상인 문학상 위원회가 '제2회 선경상상인 문학상'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문학은 과학과 기술, 모든 것으로부터 통하며 한편으로 산업은 존재하는 상상이라는 모토 아래 편견과 고정관념이 아닌 소통하는 문학을 지향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사업이 후원한다.

자격은 기성 시인(등단 5년 이상)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시 50편 이상을 보내면 된다.

응모 요령은 시집 한 권 분량을 시집 발간 형식(시집 기재, 약력, 목차, 본문 1~4부 편성)으로 이메일(ssaangin@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상금은 500만원이며 발표는 개별통보와 아울러 문예지 '상상인' 2022년 상반기호에 게재된다. 또한 수상 작품집은 도서출판 '상상인'으로 시집이 발간된다.

심사일정은 오는 10월 초, 시상식은 12월 초 선경산업 강당(인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10-7371-187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길꼬내기' '문굿'...광산농악 한마당 열린다

'청출어람' 8월 7일

광주무형문화재 제8호 광산농악보존회가 전수교육생들과 함께하는 광산농악 한마당 '청출어람(靑出於藍)'을 선보인다. 8월7일 오후 2시 광산농악 전수교육관.

이번 공연은 무형문화재 광산농악을 배우고 있는 전수생들과 광산농악보존회 선생님들이 같이 판을 만들어가는 축제로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2021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공연은 '길꼬내기', '문굿', '질굿마당', '오방진

굿마당', '호허굿마당', '구정놀이마당', '섞음마당' 등으로 구성됐다. 이밖에 투호, 널뛰기, 제기차기, 줄타기 등 다양한 전통 놀이 체험을 진행하며 광산농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진 전시도 개최해 시민 모두가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광산농악 전수교육관은 지난해 10월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에 개관했으며 3438㎡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710.95㎡ 규모로 대강당 1개와 소연습실 2개, 야외공연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무료관람. 사전예약 필수. 문의 010-2658-3285. /전은재 기자 ej621@kwangju.co.kr



광산농악 한마당 '청출어람(靑出於藍)'이 오는 8월 7일 광산농악 전수교육관에서 열린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